

순천만, 국제사회가 배우는 생태보전 표준모델 ‘우뚝’



순천시가 안봉들 일대 전봇대 제거로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대한 결과 최근 멸종위기 I 급인 황새가 순천만에서 관찰됐다.

흑두루미 이어 멸종위기종 황새 관찰...야생 개체 추정 노관규 시장 “생명의 터전·자연과 공존 공간 관리 강화”

순천만이 ‘생명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안봉들 일대 전봇대 제거로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대한 결과 최근 멸종위기 I 급인 황새가 순천만에서 관찰됐다.

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로, 몸길이 110~150cm에 달하며 전 세계 개체수가

약 2500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이번에 관찰된 황새는 가락지가 부착되지 않은 야생 개체로 추정된다. 황새 출현 소식이 전해지자 맨발로 걷는 탐사르길과 인접한 순천만 탐조대에는 탐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5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국·중국·일본·러시

아 등 4개국의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철새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 (Nature-based Solutions, NbS) 실천 모델이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노력의 결실로 황새가 순천만에 찾아온 것은 순천만이 철새들에게 안전한 서식 공간으로 복원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흑두루미와 황새가 함께 머무는 순천만은 생태도시의 이상을 실현한 공간이자,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응답이다”며 “앞으로도 순천시는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며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세계가 배우는 생태 보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내년에도 흑두루미 행동패턴 연구, 서식지 모니터링, 지역주민 참여형 생태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순천만이 ‘생명 회복의 습지 모델’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교화 할 계획이다. 올해 순천만에는 총 6647마리의 흑두루미가 도래해 역대 최대 월동 개체수를 기록했다. 심포지엄 폐막 직후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관찰되면서 생태 복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순천=박철성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유자 본격 수확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두원농협 유자 수매장을 방문하고, 유자추출제와 함께 본격 수확기에 접어든 고흥유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살폈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 유자 주산지로서 유자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7880t 규모의 유자를 수매할 계획이며, 유자 수매는 지역농림과 가공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흥, 내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강화

내달 12일까지 과수·시설원에·노지채소 분야 접수

고흥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과수, 시설원에, 노지채소 3개 분야로 추진되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병해충 예방, 기후 변화 대응, 생산비 절감 등을 중점으로 한다.

신청은 해당 사업 대상자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흥군 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과수 분야는 과수생산기반 구축, 틈새시장 공략

유망과수 생산기반, 조생복숭아 생산기반 구축 등 6개 사업, 시설원에 분야는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노후 시설원에 생산기반 자동화 지원 등 9개 사업, 노지채소 분야는 마늘·양파 흑색썩음균해병 예방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원예작물 재해예방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각 지원사업은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며, 세부 요건과 사업 지침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군정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은 조정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

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고흥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를 건립 중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공급센터는 집하, 원물관리, 선별, 포장, 저장, 보관,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스마트형 유통 거점으로, ‘당일 선별·당일 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신선도 높은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급센터에서는 농산물별·작목회별 공동계산제(운송·포장·수수료 포함)를 도입해 투명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권장 가격 제시와 최소 수수료 운영(군 직영)을 통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앞장설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곡성, 범군민 결의대회...민주당 대표·예결위원장 등 면담도

곡성군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이 농촌의 생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과 범군민 결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군은 최근 열린 ‘2025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범군민 결의를 진행했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5개 군은 그동안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확대를 요구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공동성명서를 전

달해 농촌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직접 호소하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군은 기본소득 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례 제정, TF팀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범군민 서명운동, 유치 결의대회 등을 차례로 추진하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지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고,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가장 잘 된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곡성군은 사업에 대한 행정 역량, 주민 공감대까지 모두 갖춘 지역이다”며 “추가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곡성에서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 ‘2026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유치 총력

COP30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도·민간단체와 협력

여수시는 최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26년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COP30 참석을 위해 여수시는 최정기 부시장을 비롯한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COP30 한국홍보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기후주간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전략과 대응 방안, 탄소중립 비전, 중앙·지방정부 및 국제기구 간 다층적 협력 방안 등을 설명하며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발표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참석해 여수시의 기후주간 유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기후부에서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기후주간 유치 필요성과 여수시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으며, 패널 토론에는 유노스 아리칸 이클레이 글로벌정책 총괄국장,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김경성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등이 참여해 여수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 이상훈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민간 유치위원회 관계자들도 동행해 유치 홍보활동에 힘을 보탰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정책발표회는 여수가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기후부, 전남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2026년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 (주)현대푸드, 가공식품 중국 ‘첫 수출길’

버터구이 오징어 등 선적식

상하이 월마트 23억 규모 공급

장흥에 위치한 식품가공업체 제품이 중국 첫 수출길에 올랐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현대푸드 사업장에서 버터구이 오징어 등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현대푸드(대표 강종재)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진미류 등을 가공·생산는 기업으로, 380억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수출보다는 국내 내수용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4년부터 2년 동안 중국시장 수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취득에 성공했다.

현대푸드는 버터구이 오징어 160만 달러(약 23억원) 초도물량을 중국 상하이 월마트에 공급하며 본격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알렸다.



장흥군은 최근 ㈜현대푸드 사업장에서 버터구이 오징어 등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월 300만 달러 이상(약 43억원 규모)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품목도 기존 버터구이 오징어 1개에서 진미채워김, 기존 진미류 등 3개 이상으로 수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종재 현대푸드 대표는 “월마트 중국 법인과의 협력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중국

내 해산물 스낵 시장 수요 증가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대푸드의 월마트 중국 수출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 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양, 투명페트병·종이팩 무인 수거기 추가 설치

생활권에 확충...분리배출 편의 강화·재활용률 제고

광양시는 최근 인공지능(AI) 투명페트병 파쇄형 수거기 3대와 IoT 기반 종이팩 수거기 4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개소에 총 14대의 수퍼민 무인 재활용품 수거기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캔 23t, 투명페트병 69t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4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캔 15t과 투명페트병 61t을 회수해 3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설치 장소는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용강도서관, 중앙동 중천공원 3개소로, 각 장소에 투명페트병 수거기 1대와 종이팩 수거기 1대씩을 나란히 설치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종이팩 수거기 1대는 11월 중 환경교육센터(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내 기존 수퍼민 수거기 옆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캔가루’ 투명페트병 파쇄형 수거기는 기존 압축형이 아닌 파쇄형 제품



으로 수퍼민 무인회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 수거기는 전화번호 입력 후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인공지능 센서가 자동으로 선별·파쇄해 재활용한다. 1개당 10포인트(10원)가 적립되며, 라벨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내용물 잔존 시 자동 배출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